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5월)

일시	2020. 5. 21. 목.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구제길, 김요수,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이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0명)	
	회사	송일준 사장,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조현성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이선우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이선우 기획심의부장 : -시청자위원 12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영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반갑다. 3개월 만에 뵙게 됐다. 다른 행사는 축소를 하는데 저희 경우 숫자가 소수이고 해서 개최하게 됐다. MBC에서 지난 2개월 동안 고생했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방영했다. 최근에는 5.18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2부작으로 만든 다크도 1부를 본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2부도 기대감이 많다.
- 송일준 사장 :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이 방문했다. 여러 지역방송에 관한 얘기도 했다. 상임위원으로서 시청자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소개했다.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열심히 해주셔서 10분짜리 편성한다고 하니 좋아했다.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는 민언련을 통해 서울에도 전달이 되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 매월 대면 시청자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두어 달 동안 광주MBC가 5.18 콘텐츠 생산에 정말 노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은 광주MBC 명예를 드높였다. 김철원 기자가 만든 다크, 백재훈 PD가 만든 다크도 상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핑크피쉬>가 작년에 이어 연속 수상했다. 광주MBC에 여러 가지 경사가 겹쳤다. 다만 너무 경영이 어려워 힘들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설상가상으로 닦쳐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도 광주MBC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광주에서는 그야말로 최고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기대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핑크피쉬> 시즌 2가 작년에 이어 한국PD대상을 수상했다. 5월 4일부터 시즌2가 전국 방송이 되고 있다. 올해 한국방송전파진흥협회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2개 프로그램이 당선됐다. UHD <건축혁명> 8부작, 자연과 인생의 공생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8부작이 지원을 받게 됐고, <친애하는 나의 도시> 10개의 에피소드가 광주, 전남 공동으로 제작하는 게 선정이 됐다. 라디오 펄펜스튜디오를 오픈해서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 방송을 하고 있다. 4세대 방

광 가속기 방송을 했는데 광주, 목포, 여수 3사가 공동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라디오 드라마 <녹두서점의 오월> 총 20부작을 방송하고 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진행하는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40강이 장장 10개월 걸친 연재가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 총정리편을 방송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모아 총회를 했는데 녹화를 해서 5월 16일 7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방송했다. 5.18 40주년을 맞아 행사 추진위원회와 공동기획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5.18 아이টে을 중점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향후에 5.18 특집 토크멘터리 우리는 오월로 갑니다 <오월행>을 방송 예정이다. 5월 28일 예정돼 있다. 광주, 서울, 부산, 마산 전국에서 만난 오월의 흔적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의성, 표창원, 심용환 세 명이 출연한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문화콘서트 난장>이 녹화를 재개했는데 서문탁 등이 출연한다. 기획 특집 촬영을 시작하는데 UHD <건축혁명>, 다큐드라마 <간양록> 등이 촬영 들어간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MBC 부분 개편이 들어가는데 월화드라마 9시 반부터 진행되고 일요일 뉴스는 30분 줄어들고 <스트레이트> 일요일 밤에 9시 반부터 방송된다.

- 조현성 보도국장 : -40주년 특별대담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을 편성해서 일요일 아침 방송했다. 5.18 특집다큐 <이름도 남김없이>가 방송됐다. 2부는 27일 방송 예정이다. 정규 방송 시간에는 <광주를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토론 방송을 진행했다. 데일리에서는 '흔들리는 위상, 흔들리지 않는 진실' 주제로 보도했다.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 최근에 등교 시작 등에 대해 충실히 보도하려고 노력했다. 6월에는 코로나 19로 지속되는 여파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뉴스에 담도록 하겠다. 지역 현안 차질이 없도록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상반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나가겠다. 비슷한 맥락으로 시의회 시정질의 생방송도 추진하겠다. 그동안 저희가 SMT 주도로 뉴미디어시대에 앞장서 간다고 했지만 보도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뉴스 아이টে을 개발해서 조금 더 시대와 속도를 같이 하는 뉴스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5월 주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 중이다. 광주MBC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작년까지 만든 40여편이 넘는 강연이나 다큐를 스트리밍 하고 있다. 40주년 기념식, 대통령 역대 기념사 등을 발 빠르게 제작해서 라이브로 유튜브에 올렸다. 그중에 5.18기념식이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있었다.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유튜브 채널 열씨구TV에서 열씨구당이라는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는데 기존 주 1회 제작하다가, 수, 토요일 주 2회 제작으로 늘렸고 TV에 주 1회 편성하고 있다. 그사이 주목할 만한 콘텐츠로 자체로 제작한 신천지 관련 콘텐츠가 있었고 15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저희가 오래전에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호 건 씨 대담을 했던 콘텐츠가 코로나 연계해서 반응이 뜨거웠다. 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야구 아카이브 콘텐츠를 전설의 타이거즈로 만들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6월 주요 계획으로는 디지털콘텐츠PD 신입사원 교육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 할 생각이다. 올해 공모사업 중에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짧은 형태, 10분 이내에 <한 평의 삶>이라고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10분 내외 다섯 편 정도 제작하는데 선정이 돼서 6월부터 제

작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제작지원과 신입사원, 기존에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자체 제작을 강화할 생각이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보직인사 4월 1일자 있어서 보도국장, 저를 비롯해 보직 이동이나 승진이 있었다. 시청자위원 세 분이 추가로 선정됐다. 임기가 만료된 이나건 위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2명이 있어서 공모를 받았다. 심사를 거쳐서 3분을 선정했다. 강부원 변호사는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고미아 위치스 대표이사와의 정권 디에이치글로벌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디지털콘텐츠 PD 공채를 했고 다음 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최영태 위원장 : -굵직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좋은 반응도 있고 상도 많이 받았다. 6월달 향후 계획을 보면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 류한호 위원 : -라파 제작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지원금이 2억2천 정도 받았고 자부담이 7천 정도 된다.
- 류한호 위원 : -양림동 펭귄스튜디오는 참 좋고 재미있다. 하울링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보완해나가고 있다. 잘 보셨다.
- 최영태 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를 해달라. 박미자 위원부터 해달라.
- 박미자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 5월 10일분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 조오섭 당선자 두 분이 출연하는 토론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오래 정치를 했던 분이고 경험이 많은 분이라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였다. 낙선했던 경우에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정치인으로서 똑같은 텐데 비판적으로만 말하는 것 같다. 그래도 오랜 경험으로 북한과의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 같은 것은 역시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반면에 조오섭 당선자는 개인의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가 다소 가벼워 보일 수는 있었다. 워낙 앞에 이야기가 정세 문제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한 시간에 신구의 조화로 해서 정치를 했던 분과 신인에 대한 비교,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
- 임철원 위원 : -금년이 5.18 40주년이 되고 해서 그런지 5.18 관련이 풍성하고 많은 기획이 있다. 그리고 정치지형이 여권에 유리하게 조성이 돼서 발포 명령 진상규명이나 5.18을 폄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처벌도 가능한 입법화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5.18 관련 돼서 진전이 되리라 기대가 있었다. 5.18 프로그램 중에 인상 깊었던 게 5월 19일 방송된 <오매 전라도>에서 5.18을 축제와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또 광주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화 세계화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있었다. 5.18영화 <낙화잔향>은 지금까지는 시민군을 내세워서 했는데 일반시민이 타 지역 여학생과의 대화나 경험을 통해서 잔잔하게 풀어가는 시도도 좋았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수레를 끄는 사람들>에서 5.18사적지를 돌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춤을 했다. 도청이나 주요 장소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의미 있는 사적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획을 통해 사적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여러 나라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정신,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표현됐다. 앞으로도 광주MBC가 과거의 한, 분

노, 눈물,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이번 달에는 5.18 40주년이다 보니 여기에 주목했다. 40주년을 맞아서 광주MBC가 편성한 특집프로그램 많이 있다. 눈에 띄는 특집이 몇 개 있었고, 어쩌면 MBC의 정체성과도 연관되는 걸로 봤다. 80년대 광주지역에서 바라봤던 MBC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은 누가 뭐래도 통 큰 기획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오월에 대한 대통령의 기억과 사회 그리고 광주쪽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번 5.18기념사에서 얘기됐지만 미래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분명하게 했다. <내 인생의 오일팔>이라는 시리즈에 일부로 됐지만 대단원을 내린 건가? 적절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름도 남김없이> 다큐멘터리 2부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년부터 최소한 1년 이상 프로그램에 매달려 온 걸로 알고 있다. 긴 시간 동안 만든 프로그램이 2부작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광주였다> 1부를 방송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노력한 사람들과 그네들의 치열한 연대 활동, 저도 일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 나가 있는 교포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과 연대해서 오월을 기억하고 세계화해 나가는 모습을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큐멘터리로 정리해줘서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5월 27일에 방송하기로 한 2부 <그 후로도 오랫동안>도 기대된다. 5.18 이후 미국에 망명했던 윤한봉 선생의 이야기,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돌아가셨죠? 5.18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고,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데 공헌한 서유진 선생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것은 MBC의 특종이 될 것이다. 작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독일과 일본 교포들의 활동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잘 지켜보겠다.

- 박미자 위원 : -<내 인생의 오일팔>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말하는 5.18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엔 특히 현 대통령으로서 5.18을 이야기하는 아마 최초의 대통령인가? 특히 광주MBC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현 대통령이 경험한 5.18은 광주 속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밖에서 바라본 5.18이었고, 또 밖에서 바라본 왜곡된 시선 속에 그분은 알고 있는 진실을 진솔하게 시청자, 국민에게 표현해준 게 감동을 받았다. 지난번 유가족을 안아준 이야기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청자로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해줘서 좋은 기회였다. 특별법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유공자로 인정 받고 국가기념일로 치르고 이 정도면 국가적으로 정리하고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을 순간 들었을 때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5.18의 인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광주항쟁의 주역이 아니어도 광주 밖에서 광주를 알리기 위한 인물들도 5.18에 기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5.18 당사자는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18 40주년 특별기획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5.18 이야기는 많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던 멋진 기획이었다.

○ 김요수 위원 : -이번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이 단연 돋보이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느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터뷰가 대박인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우선 광주MBC 안에서도 간판 프로그램인 <김낙곤의 시사본색>을 본방송에서 밀어낼 정도로 시간을 차지하고 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얘기를 어느 술좌석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대체 뭐냐 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도 40분 정도 그 프로그램에 빠져서 봤다. 단순히 5.18을 다루지 않고 부마항쟁부터 날짜별로 짧고 다이나믹하게 정리를 해주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도 다른 데에 이야기하기가 참 좋았다. 5.18 이후인 87년 이한열 열사까지 가락을 추려줘서 민주화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제가 간혹 대구에 놀러 가는데 거기 가서 보여주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섭외했다는 게 대단히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서울역 회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아주 잘 풀어줬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복학생이었는지 몰랐는데, 대통령이 야전잠바 입고 돌아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웃음도 나고 했다. 단순히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인터뷰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영상을 집어넣었다. 표정두, 박관현, 조성만, 박래전 그런 부분을 거론한 부분이나 유가족인 김소형 추도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대통령이 안아주는 장면 그런 것은 다시 봐도 눈물이 찼끔거리고 감동을 줬다. 마지막까지도 쪽 과거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마지막에 5.18 이후의 미래 이야기를 꺼내도록 한 것도 인터뷰 솜씨를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보게 만드는 프로그램, 알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마음이 끌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 이묘숙 위원 : -공통적인 게 있다.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 누구나 똑같은 감동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5.18 40주년 특별기획은 광주MBC가 중앙이든 타 방송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기획과 진행을 획기적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특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5.18하면 광주사람들이 광주 얘기에 너무 집중해 있었다는 것이다. 박미자 위원의 얘기처럼 우리가 아닌 밖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조해주고 또 우리 이야기를 객관화된 현실 속에서 얘기해 줄 때 훨씬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기획은 다양한 층위가 있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있었지만 외국인이나 당시 간과할 수 없었던 일본이나 평화사절단으로 왔던 그들의 눈에서도 그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아픔이었고 그런 향변이었다. 우리 대신에 너무나 정돈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공감대가 크지 않았나 싶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주가 가진 아픔을 담담하고 확실하게 정의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기념식에도 말씀해 줬지만 헌법 전문에 광주정신이 담겨야 하는 이유와 5.18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정리해준 프로그램이었다.

-5월 19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이름도 남김없이> 1부만 봤다. 2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1980년 광주의 상황을, 그리고 진상을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확실하게 오히려 역으로 듣게 되는 경우였다. 일본 작가의 판화 작품에서 느껴지는 한 컷의 이미지가 주는 절절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획과 긴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확실하게 와닿았다. 40년을 맞은 5.18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과거의 억울한 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흑 던진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광주가 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 마무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별기획은 광주MBC를 칭찬해주고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이었다. 수고 많았다.

○ 이철우 위원 : -저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군대에 있었다. 팔공산 레이저 사이트에 근무를 했다. 한 달 이상 야근을 하면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그때는 보도 통제가 됐었니까 몰랐는데 결국 이를, 삼일 뒤에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보고, 걱정이 된 거다. 요새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권이 악랄하게 통제하면서 모든 걸 감춰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숨겨졌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노력이 굉장히 좋았다. 힌츠페터를 보냈던 폴 슈나이스 목사라든지, 윤상원 열사를 통역했던 평화봉사단의 데이비드 돌린저 등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봐왔으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 콘텐츠로 제작돼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광주MBC의 공헌도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된 MBC의 활동을 칭찬해줬다. 한 가지 항상 5.18 때 아쉬움이 있다. 이 시즌이 돼서는 막 달아오르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그러드는 느낌이 항상 남는다.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것은 없을까.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제자가 전화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어떠냐 했더니 괜찮다고 한다. 한국 때문에 기분이 좋다, 어깨를 펴고 다닌다고 한다. 주변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한다. 뭐냐 하면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한국을 지켰는데 그게 외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항상 위시장이 돈을 얼마를 받아왔고 공단에 공장을 얼마 세웠고, 이런 면에서 먹거리 일자리 이런 것만 따졌다. 저는 공과계통이니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업도 많이 해봤다. 그런데 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볼 때 광주 가면 배울 것이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항상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도덕 재무장하자는 옛날식 이런 게 아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택시가 신호를 잘 지키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적지도 주민들이 나서서 청소도 하는 운동도 있고. 이런 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광주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 칭찬만 하고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본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언론이나 지역사회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을 바꾸는 문화운동을 해서 그걸 남게 했으면 어떨지 생각을 항상 해본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코로나로 인해서 못 보었다가 여기에서 뵙게 돼 반갑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마 40주기를 화려하고 요란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번 40주기에 MBC의 역할이 컸던 것은 활발한 행사 위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스미디어 갖고 있는 파장,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여긴다. 상춘재까지 녹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대한 내용은 쪽 얘기를 했었니까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일요일 날 접한 방송에서 가슴에 하나 남는 키워드가 빛진 것에 대한, 광주에 빛진 것, 가슴에 빛진 거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점이다. 다음날 기념사에서 그것을 강조했다. 임기 3주년을 마치고 앞으로 2년의 방향 제시를 대국민들 앞에 노출해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알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날 방송에서 봤지만 그냥 일상적 취재에서 옳은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속내를 내놓는 듯한 직접 민주화에 참여해 같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마음의 빛, 광주 시민들이 끝까지 책임져준 것에 대한 빛, 40년을 거쳐 오면서 이제 좀 드러내서 겨우 시작하는 게 헌법 전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호남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문 정권의 후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남은 2년 동안 문 정권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본인은 어떤 생각인가가 40주년 기념사에 잘 도드라지게 낸 것 같다. 좀 욕심을 더 낸다면 방송을 아주 잘하셨고 그런 기회 포착이 쉽지 않은데 진행자가 뭐랄까 60년대 이후생 그때 당시를 회고할, 대통령이 얘기하면 맞받아 할 코드가 맞는 분, 간판급이 가서 했다면 훨씬 공감하는 것도 크지 않았을까. 그날 녹화하는 김철원 기자 아주 편한 상태로 가서 꾸밈이 없다는 인식을 했지만 그래도 광주MBC에서 만들면 광주에서 안 끝나고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18년도에 기념식에서 출산하는 부인을 보러 오다가 죽었다, 그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울었지 않았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그 신이 다시 나오는 장면에서 자막으로 다뤄줬다면 앞과 뒤가 연계가 잘 됐을 것이다. 특집 하나를 만들 때 공을 더 들이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었다.

-<핑크피쉬>는 연작해서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리포터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상큼했다. 로컬에서 제작한 것이 역시 국제적일 수 있다는 것,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방송을 계속 만들고 상 받아 축하한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붕어빵을 잘 사 먹는다. <핑크피쉬>를 제작하는데 내부에서만 다할 수 없는 것들은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붕어빵도 좋고, <핑크피쉬>에 관한 어떤 것들이 방송에 걸맞게 타고 흘러가서 광주에서 재발견해서 재생하는 그런 느낌이 공유하는 코드로 만들자. 찰진 흥어맛은 정말 좋은데 젊은 애들은 근처에도 안 온다. 냄새도 안 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 이미지를 좀 긍정 모드, 호감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런 식의, 전혀 흥어와 상관없는 흥어빵, 떡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지역적인 것을 부활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 구제길 위원 : -지난 5월 17일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이라는 특별방송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다. 지역방송의 역할과 소명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지역방송이 현직 대통령을 인터뷰한 것도 의미 있지만,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경험은 물론이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앞으로 전망 등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의미가 컸다고 믿고 있다. 특히 대통령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발언은 유가족 등 5.18 관계자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최근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만큼, 발표 명령자와 암매장 그런 많은 숙제들이 40년째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숙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5.18과 관련해 생각나는 인물로 꼽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아직도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5.18을 전국화하는 단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취재

기자를 비롯해 제작진, 그리고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임직원 여러분의 뒷받침이 이런 특별기획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을 넘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많은 기획을 기대해본다. 정말 광주MBC 5.18 특집을 통해서 죽음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기회가 되었다. 제작진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 조속경 위원 : -구제길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오일팔> 감동적으로 봤다. 사실 한 4년 전쯤부터 <내 인생의 오일팔> 같은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겠는가 제안을 했었고 그게 놀라운 성과로 나와 뿌듯하다. 지역방송사에서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전국적 파급력이 크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도국장이 인터뷰를 한다거나 했다면 좀 더 무게감이나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까.

-라디오 드라마 <녹두서점의 오월>을 매일 아침 재미있게 듣고 있다. 기획이 아주 좋고 신선하다. 하지만 다큐인가 드라마인가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다. 또 하나는 성우들이 사투리를 한다. 그 사투리가 좀 더 과장돼 있다고 할까. 내 마음속으로 대사가 딱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점이 향후에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미자 위원 :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등 김철원 기자가 5.18 관련해서 많은 특집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 그날 진행할 때 대통령 앞인데도 인터뷰를 잘한 걸로 보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아마 이게 편집상의 오류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린 게 뭔가 인터뷰에 대한 여운이나 깊은 의미라든지 마무리 멘트를 하고 감사합니다 했으면 시청자들도 여운이 남았을 것이다. 대통령 말씀이 끝난 뒤에 바로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게 감동을 받다가 딱 끝나버린 그런 느낌이다. 뭐라고 한 마디 해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부분이 긴장하셨는지 편집상의 시간상의 문제였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기자님 뵈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

- 조속경 위원 : -기자분이 해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좀 더 무게감이 파워풀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는 것이다.

- 최영태 위원장 :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문 대통령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냈고 모두 빠지지 않고 하신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도 많은 사람이 보고 공감했다는 증표일 것이다. 다만 진행자 문제와 관련해 최선희 부위원장님도 조속경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박미자 위원님의 또 다른 관점에서 평을 하셨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의도를 물어보자.

- 류한호 위원 : -저는 라디오 드라마 <녹두서점의 오월>에 주목했다. 드라마라는 형식이 보통 지역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기 어려운 쪽인데 이것을 드라마라는 형식을 만들었다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라디오가 아닌 TV 드라마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TV드라마는 지역방송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장르다. 라디오 드라마를 만듦으로써 그 지역방송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를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의 출구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야기의 내용은 막 벌리지 않고 사사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녹두서점이라는 장소,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엮어낸 것이 그 이야기가 구체성이 있고 벌어지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

여줬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시도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축적해 나가는 노력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다.

- 이요숙 위원 : -라디오 드라마 20부작 <녹두서점의 5월>은 5.18 40주년 특별기획을 라디오 드라마라는 컨셉으로 잡았다는 거 그리고 녹두서점이라는 하나의 획으로 진행한 것을 칭찬할 만하고 시의적절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더군다나 유튜브를 비롯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라디오 드라마는 아날로그적인 접근 방식이 나름 몰입감을 주기도 하고 출근시간이다 보니 라디오에 집중할 수 있어서 청취자로서 기분 좋은 일이었다. 아쉬운 점은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과 청년들, 대학생이 주로 나오는데 성우들의 음성톤은 50, 60대 목직하고 굉장히 지금 현재 60, 70대가 회고할 수 있는 음성톤이었다. 그런 게 좀 거리감을 줬다. 사투리도 광주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가 태어나서 딱 1년 빼고 광주에서 체류해왔다. 혹 이 방송이 광주시민이나 전남권이 아닌 타 지역에 갔을 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극 전반의 해설 내레이션도 뉴스나 다큐멘터리 분위기의 너무 나서 비장미가 느껴진다. 증언이나 취재 방송이 아닌 드라마라는 설정이다. 그러면 좀 더 대통령의 5.18은 왜 공감하겠는가. 당당하면서도 담백하게 때문에 진실성이 있다. 지나치게 연극배우들의 무대에서 액션이 음성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 같은 편으로서 응원만 하지 않지 염려되고 과한데, 무거운데 너무 침잠하는데 하는 사소한 불안감이 염려돼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게 제거가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광주MBC가 라디오 드라마라는 새로운 분야에 정착된 콘텐츠로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억울함과 분함을 항상 절규하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면서 사실에 입각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용서와 승화가 된 톤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월 27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방송 중 1부에 인터뷰 전화 연결이 있었다. 아시겠지만 전화 인터뷰라면 전화를 걸어 라인에 연결하는데 혼선이 있었다. 스튜디오에서 떠드는 소리가 같이 들어와서 사운드가 먹혔다. 오랜 시간 계속돼서 결국 진행자가 전화를 끊어서 다시 연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침이라는 이른 시간에 방송이기에 엔지니어랄지 방송 부스 밖에서는 그 시간 동안은 집중과 긴장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전화선의 음성이 먹혔지만 과거에도 방송사고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부분은 집중력 있게 정신 차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 김요수 위원 : -이번에 광주MBC에서 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캠페인을 꼭 봤다. 시대를 새기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희망연대 캠페인, 기억해야 할 이름 수록도 간호사 파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 5.18을 새로운 장르로 풀어낸 박은주 작가님의 샌드아트, 보행안전 캠페인, 교육 캠페인, 꽃소비 캠페인, 이런 것들을 꼭 봤다. 1분짜리 드라마처럼 재미있었다. 귀에도 쏙 들어오고 눈에도 쏙 들어와서 만약에 광주MBC에서 이걸 다 제작했다면 광주MBC가 드라마 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모든 캠페인이 교훈과 감동을 줘서 좋았다.

- 박미자 위원 : -<2020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 있게 봤다. 제가 북을 지역의 유권자다. 그날 이형석 당선자가 참여를 못했다. 우리 지역

당선자이다 보니 안 보이는 게 눈에 확 들어왔다. 처음에 사회자가 어떤 이유에서 참석 못했으면 못한 부분에 대한 멘트라도 있었던지 아니면 멘트할 순서가 안되면 나름대로 영상이나 메시지 정도는 녹화를 해서 끝나는 부분에 들려준다든지 해야 한다. 왜냐 하면 같은 당선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역 유권자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나.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피력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특히 양향자 당선자는 광주지역 당선인 전원이 출연을 했다는 말과 사회자도 지역 당선자 모두 참여한 총회라는 멘트가 계속 나오다 보니 정말 모르는 사람은 광주지역 당선자가 8명인가. 또는 권은희 당선자나 이형석 당선자에 대한 MBC의 준비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중에서도 시민 패널들이 직접 참여해서 질문하는 거, OX 판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영상, 시민들이 질문하는 중간 중간 진행의 묘미,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정치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고, 답변하는 당선자가 패널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데 당선자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제기하는, 약간 맞지 않았음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나름대로 사회자가 정리를 해주었으면 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중간중간 넣어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내용이 어려운 과정 속에 작은 이해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시민들, 시청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선거 이후의 당선자 생각이나 소신 그리고 공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총회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기획이었고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어제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 개학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이 많고 긴장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일주일 전쯤 전남의 세한대학교에서 전면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MBC에서 일주일 전쯤 보도했다. 궁금한 것은 다른 대학은 안 하는데 세한대학만 그렇게 했다. 학생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학교가 강행한 배경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MBC에서 후속보도를 해주면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연속적으로 개학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

-기획 프로그램으로 3일 연속 보도한 <흔들리지 않는 위상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루는 SNS를 통한 왜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왔다. 저는 제목으로 봤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위상' 하면은 5.18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제목을 단다면 '흔들려서 세력 흔들리지 않는 진실' 이렇게 한번 달고 싶었다. 한 번 참고하시라.

-다큐 <이름도 남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제가 아는 사람이 1부가 굉장히 좋았는데 광주 전남만 방송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광주, 전남권에서만 방송된다면 5.18 전국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전국 방송을 탔듯이 서울에 얘기해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도록 노력하면 그게 바로 5.18의 전국화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받았다.

-지금까지 질문이나 의견을 보면 세 가지로 많이 집중됐다.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 <이름도 남김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와 2부에 대한 기대,

<녹두서점의 오월>에 대한 긍정적,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이요숙 위원님 지적하신 <황동현의 시선집중>DML 기술상의 실수는 죄송하다.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녹두서점의 오월>은 작년 봄에 출간해서 애초에 기획을 10억 정도 예산을 모아서 100부작 드라마를 하려고 했는데 제작비 확보에 실패했다. 피디 개인이 백방으로 뛰어서 규모를 줄여서 20부작으로 했는데 그 안에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5.18 특집 부분에서는 라디오 드라마가 나와서 장르 확장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다.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외에 정규 프로그램에서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오매 전라도>에서는 5.18행사추진위원회와 공동 기획으로 지난주,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데 LTE, 스튜디오 취재, 제작물 등 여러 가지 생활 속 5.18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산과 기획을 같이해서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권은희, 이형석 당선자가 배제된 것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MC 멘트나 자막 고지를 못한 것은 저희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린다. 최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핑크피쉬>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핑크피쉬 스토어를 하나 내는 것인데 양동시장에 핑크피쉬 1호점을 내려고 서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 조현성 보도제작국장 : -5.18 40주년 맞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특집프로그램을 한 것에 대해서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제작진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 인터뷰가 성사되기까지 사장님께서도 결정적 역할을 해줬고 전임 보도국장이 기획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진행만 했다. 회사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몇 가지 궁금해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진행 인터뷰를 보도국장, 취재부장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희도 내심 고심을 했다. 김철원 기자가 그동안 5.18에 소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배 기자가 따라갈 수 없었고 이번 인터뷰를 실날같은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당사자도 김철원 기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뵈고 만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일담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뷰를 높은 가능성을 보지 않고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채의식, 그동안 보여줬던 애정에 기대를 많이 했다. <이름도 남김없이> 목표, 여수까지 송출이 됐다. 전국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오일팔> 문재인 대통령 편은 아리랑TV로 18일부터 나갔고, 정책방송 KTV에서 바로 그날 18일부터 방송이 됐다.
- 송일준 사장 : -밀도 깊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보도국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기자가 하는 것이 조금 격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격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의 주제가 5.18에 한정된 게 아니고 국정 전반 여러 가지 폭넓은 것이었으면 제가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국장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 국장이 얘기한 대로 김철원 기자라는 광주MBC 5.18 전문기자가 노력해서 추진했던 것이다. 또 그 공을 김철원 기자가 당연히 받는 것이 기자에게 격려도 되고 보상도 되는 것이다. 저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요숙 위원이 <황동현의 시선집중> 할 때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셨

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녹두서점의 오월>은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자마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TV드라마로 하는 게 지역사에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디오 드라마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편성제작국장한테 얘기를 했다. 김귀빈 아나뉬서가 엄청 열심히 한다. 서울에 있는 MBC 성우 9명, KBS 성우 2명을 섭외해서 11명의 성우를 데리고 20부작을 한 것이다. 그중에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한 성우가 광주 출신이다. 김귀빈 아나뉬서가 광주 출신으로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현애 역할을 맡긴 것이다. 다른 사람은 정현애 역할을 한 성우에게 물어보고 배워서 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사투리가 어색할 수밖에 없다.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맛이 나게 하는 성우를 찾기가 힘들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는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지역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현시킨 데가 한 군데도 없다. 편집하고 뭐하고 해서 100분 정도 추려서 방송을 했다. 원본은 세 시간 정도 된다. 원본 그대로 유튜브에 공개하고 필요하면 이슈별로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짧게 짧게 올리고 할 테다. 방송에서 못 본 신랄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게 빠졌는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5.18 관련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광주MBC가 해야 할 여러가지 일, 제가 임기 중에 하고싶은 일을 얘기하면서 5.18 하면 광주MBC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힘을 쏟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대한 부채에 대해 말씀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다. 광주에 대한 부채를 안고 수십 년 피디생활을 했고 제가 사장으로 와서 그 부채의 일단이라도 갚는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5.18은 제가 하고 싶다는대로 거의 지원을 하고 저희 구성원도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방송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름도 남김없이> 전국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만든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것을 좋은 시간대에 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우리 것을 좋은 시간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김군>을 돈 주고 산 모양이다. 김군을 편성을 했는데 매우 좋은 다큐멘터리다. 여러 5.18 콘텐츠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칭찬을 해줬는데 김철원 같은 기자, 꾸준히 5.18을 파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자가 광주MBC에 더 많아야 한다. 김철원 기자야말로 광주MBC의 정말 인재고 보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핑크피쉬>를 했던 백재훈, 최선영 PD도 훌륭하다. 원하는 수준의 고급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인재들이 광주MBC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늘 이 칭찬이 저도 기쁘고 국장들도 기쁘다. 대단히 감사하다.

- 최영태 위원장 : - 3개월 만에 회의를 해서인지 많이 참석했고 모두 진지하게 준비를 해줘서 감사하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고 특히 이달은 5.18이라는 더 큰 사건이 있어서 MBC에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위원들이 좋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칭찬을 해줬다. 그런 가운데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줬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다. 이상으로 마치겠다.

끝.